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추석 미사 시간 (9월 10일, 토)	아침 06:30, 낮 12:00
-------------------------	-------------------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9월 8일(목)까지 반드시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 주일미사 및 어린이 미사는 모두 봉헌합니다.

◎ 알 림

- 8월 25일(목) 19시 40분 강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 다음 주(8월 28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9월 1일부터 보스코홀 장례식장을 재개합니다.
-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안내
 - 유아세례 :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3Cu	8/21(일), 13시	강 당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2022년 꿀벌 유치원 졸업생 모임

- 주 제 : 지구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 일 시 : 9월 3일(토) 8:30~13:00
- 장 소 : 꿀벌유치원
- 대 상 : 꿀벌유치원 졸업생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02)857-8545 8월29일(월)까지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7월 31일 현재 ₩10,030,000 납부되었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8/2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1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10일 ~ 8월 16일)

교 무 금		6,837,000원
주일헌금		4,464,500원
성모승천 대축일 헌금(8/15)		3,784,100원
	황정후20만원	지경자 8만원
	노갑열50만원	이은용10만원
	심점순 5만원	서상례 5만원
	오희훈10만원	신종구10만원
	김수진 5천원	김종란15만원
		김중순 3만원
		최용순10만원
		이정희 5만원
		김인영 5만원
		조성옥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8/21	최경희	조흥환	도현만
8/28	이영민	신종구	김진수
		김덕영	김보금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21	이화봉	김인기	이계명	이운영
8/28	최승일	박승환	장인홍	최석준
				김인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96.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송고한 일입니다. 좋은 정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 보고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사랑에 결합시켜 줍니다. “참된 정치 생활은 개인들의 진솔한 대화와 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가 지니는 잠재력, 곧 관계와 지성과 문화와 영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신할 때 참된 정치 생활이 쇄신됩니다.”

19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걸치레나 마케팅이나 다양한 형태의 매체 조작보다 훨씬 고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열과 반목의 씨, 그리고 공동 목표를 추구할 수 없는 암울한 회의론의 씨만 뿌립니다. 이따금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 봅니다. “나의 참된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몇 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투표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아마도 정곡을 찌를 것입니다. “나는 내 일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회생활에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겨 놓았는가?”, 나는 어떤 실질적인 유대를 쌓았는가?, “나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주위에 전하였는가?”, “나는 사회적 평화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이룩한 것은 무엇인가?”

제6장

대화와 사회적 우애

198.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서로 표현하기,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서로 바라보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 모든 것이 동사 ‘대화하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서로 만나고 도움을 주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가정들과 공동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많은 관대한 사람들의 인내로운 대화가 없었다면 세상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끈기 있고 용기 있는 대화는, 반목이나 갈등과 같은 화젯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신중히 도와줍니다.